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생산유구의 분포양상과 의미

Distribution pattern and Meaning of
Ancient tombs and Remains of daily life and
production in the center of Gyeongju During
that Shilla was formed

이 원 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I. 머리말

II. 대상자료

III.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의 분포양상

IV. 공간적 의미: 월성과 황성동·천군동 생산유구

V. 맺음말

국문 요약

이 글은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를 결부해서 분포양상을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와 원삼국 후기~신라 초기 순으로 검토하고 월성과 황성동·천군동 생산유구를 연계하여 공간적 의미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경주 도심지구는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의 수혈을 통해 초기철기에 사람이 정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원삼국 전기는 탐동 1호 목곽묘 등으로 볼 때 탐동 일대를 중심으로 단위취락의 형성을 시사한다.

원삼국 후기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를 조성하였고 인접한 월성남북구역에 거주하여 이미 월성은 기원 2세기 후엽부터 3세기에는 목곽묘가 조영되고 단위취락의 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세력에 의한 월성의 사로국 국읍 역할은 늦어도 목곽묘 단계에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초기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가 공동된 묘역을 이루는 공동묘지의 양상이 가속화되는데, 평면형태는 세장화가 뚜렷해지는 한편 발천과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특히 주거가 계획적으로 축조되어 월성축조와 함께 공간구성에 재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시설에 비중을 두어 해석하였다. 즉 황성동·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에서 생산된 철기는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남부지구의 상신리 유적에서 토기가마 2기가 확인되어 덕천리 집단으로 토기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토기가마와 달리 제철유적은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통제에 따라 그들에게 독점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달천광산도 포함된다.

결국 월성북고분군 세력은 황성동·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 및 달천광산을 통한 철생산의 독점시장을 대내외 경제·정치적 성장에 형산강길 등을 공간적으로 최대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월성, 황성동·천군동 생산유구, 형산강길

I. 머리말

경주지역의 초기철기~원삼국 전기는 목관묘, 원삼국 후기는 목곽묘, 신라 조기는 주부곽식목곽묘로 변화되어 신라형성기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사료국부터 신라 조기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가 왕성하게 진행되었다(이청규 2005; 李熙濬 2011a; 김용성 2015; 최병현 2015, 2018; 이재현 2016; 尹溫植 2019; 장기명 2023a). 즉 북토리, 구어리 산65-4, 모랑리, 화천리, 검단리, 하구리유적 등을 비롯해 조양동, 사라리, 덕천리, 황성동, 구어리유적 등의 목관·목곽묘 자료 덕분이다. 한편 사료국은 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에 경주 분지의 대부분 지구에 성립하고 구성된 읍락(그 중심지)은 경주 도심(월성 부근?), 서부(사라리?), 남부(덕천리), 동남부(죽동리)에 각각 소재하였고 북부 안강지구(안계리), 울산 동천 유역지구(중산리)도 뒤이어 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李熙濬 2011a). 그 중 경주 도심지구의 고고자료가 빈약하여 접근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 사료국~신라 초기 등에 해당하는 고분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최병현 2016a, 2020, 2023). 특히 경주 도심지구의 소규모 국비발굴(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2017a, 2017b, 2018a, 2019, 2023)이 마치 탐색Trench 역할을 해서 거시적인 양상 파악이 가능해졌다.

결국 사정동, 교동, 탑동, 황남동, 인왕동 등의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초기철기~신라 초기 분묘와 생활유적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쪽샘지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2016, 2021, 2023) 발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에 사정동 114-1번지 유적의 1호 수혈에서 점토대토기와 교동 158-2번지 유적 주거지에서 노형토기 등이 확인된 점을 비롯해 황남동 95-4·6번지, 인왕동 790-2번지 유적에서 신라 초기의 목곽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결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분묘와 생활유구 자료를 통해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경주 도심지구는 사료국과 신라 초기의 고분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간의 핵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를 결부해서 분포양상을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와 원삼국 후기~신라 초기 순으로 검토하고 공간적 의미를 월성과 황성동·천군동 생산유구를 연계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주 도심지구의 범위는 북천, 남천, 서천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핵으로 하는 현 시내를 기준으로 한다(李熙

濬 2011a: 141). 다만 경주 도심지구와 주변지구와의 연결성을 유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천 이남의 탐동 일대와 보문 일대의 천군동유적 등도 포함한다.

논의에 앞서 신라 형성기의 그 시간 폭은 대개 신라 성립 시점으로 잡는 기원 300년 즈음으로(이희준 2011b: 610) 본격적인 신라는 기원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전엽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주류이다(김용성 2011: 105). 특히 기원 3세기 중엽부터 4세기 전엽까지를 사로국 시기와 신라 조기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신라 조기로 보는 입장을 따른다(최병현 2018: 109~117).

Ⅱ. 대상자료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의 유적은 목관·목곽묘의 분묘유구가 중심이고, 생활유구는 주거지와 수혈이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자료에 의한 유적을 성격과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즉 분묘유구는 원삼국 전기~신라 초기까지 확인되지만 초기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생활유구는 초기철기 수혈 3기가 확인되는 한편, 원삼국 전기는 공백이고 원삼국 후기~신라 초기의 주거지는 확인된다.

1. 분묘유구

분묘유구는 원삼국 전기에 탐동유적에서만 확인되는데, 3기의 목관묘 중 21-3번지 1호 목관묘는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부장품의 기종구성 등이 많이 닮아 있어 존재감은 상당하다. 하지만 탐동유적은 원삼국 전기에 국한되고 원삼국 후기와 신라 초기의 분묘유구는 탐동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절적이다.

원삼국 후기는 인왕동고분 C군 6호묘 하층에서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등이 잘 알려져 있고(具滋奉 1997) 인왕동 807-4번지(남시진 1993)와 인왕동 주유소 부지의 자료도 일부 소개되었다(최병현 2014: 129). 최근에 황남동 95-4, 6번지, 인왕동 814-3, 4번지, 쪽샘 C지구에서 목곽묘가 확인되어 원삼국 후기의 자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곽묘의 부장품 등이 다른 목곽묘에 비해 우세한 편이다.

[표 1] 경주 도심지구 분묘 및 생활유구

연번	성격	시기	유적명(위치)	유구	출토유물		
1	원삼국 전기		탑동 21-3번지	목관묘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재갈, 철복, 철검, 철모, 철촉, 세형동검, 칠초동검, 일광경, 방제경, 호형대구, 동포, 경식 등		
2			탑동 20-1번지	목관묘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양뉴부호, 완, 철검, 철모, 청동검파부 철검, 일광경 등		
3			탑동 20-6번지	목관묘	주머니호, 철부(편)		
4	원삼국 후기		인왕동고분 C군 6호묘 하층	목곽묘?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등		
5			인왕동 807-4번지	목곽묘?	고배		
6			인왕동 주유소 부지	목곽묘?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7			쪽샘 C지구	목곽묘	노형토기		
8			인왕동 814-3번지	목곽묘	인골		
9			인왕동 814-4번지	목곽묘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유개대부직구호, 철모, 철부, 철촉, 철검, 도자, 유자이기, 경식 등		
10			황남동 95-4번지	목곽묘	파수부호, 첨저양이부호, 철모, 따비 등		
11			황남동 95-6번지	목곽묘	노형토기, 대부호, 장동瓮, 옹, 철부 등		
12			신라 조기		인왕동고분 A군 3호묘 호석 하층	목곽묘?	?
13					인왕동 · 황오동 4호	목곽묘	고배, 단경호, 대부호, 통형기대, 발형기대 등
14	인왕동 790-2번지	목곽묘?			노형토기, 고배, 대부호, 소옹, 양이부호, 컵형토기, 통형기대, 토제 구슬 등		
15	월성로 가지구	목곽묘, 적석목곽묘			노형기대, 단경호, 대부호, 대호, 통형기대, 철부, 철촉, 철정, 단갑편 및 소찰편, 등자, 석천, 곡옥, 관옥 등		
16	황오동 385-10번지	목곽묘?			고배 등		
17	쪽샘 B지구	목곽묘			단경호, 파수부호, 옹, 완 등		
18	황남동 95-4번지	목곽묘			노형기대, 개, 단경호, 호, 불명철기 등		
19	황남동 95-6번지	목곽묘			노형토기, 노형기대, 대부직구호, 양이부호, 고배, 컵형토기, 옹, 철모, 철검, 따비, 도자, 유자이기 등		
1	생활 유구	초기 철기	사정동 114-1번지	수혈	점토대 옹 구연부편, 무문토기 옹 등		
2			교동 158-2번지	수혈	점토대 옹, 무문토기 저부편 등		
3			나정	수혈	점토대 옹, 두형토기 등		
4		원삼국 후기		월성 북서편 95-1번지	주거지, 수혈	노형토기, 시루 등	
5				교동 158-2번지	주거지	노형토기편, 호편, 장동옹편	
6		신라 조기		인왕동 472-2번지	주거지	통형고배 등	
7				월성 3호 해자 북편 95번지	주거지	고배, 단경호, 대부단경호, 통형기대, 컵형토기, 광구소호, 파수부호 등	
	동부사적지대 발천유적			주거지	통형고배 등		

신라 조기는 월성로(가지구)가 대표적이고(國立慶州博物館 1990) 황오동 385-10번지, 인왕동고분 A군 3호묘 호석 하층에서 신라조기양식 토기들이 확인되어(최병현 2014: 130) 그 존재감은 있다. 최근에 황남동 95-4, 6번지, 인왕동 790-2번지, 쪽샘 B지구, 인왕동·황오동[A지구]에서 목곽묘가 확인되어 신라 조기의 자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인왕동·황오동[A지구]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가 진행된다면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목곽묘의 실체를 증명할 가능성이 큰데(그림 1), 현재 진행 중인 쪽샘지구 발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주 도심지구의 분묘유구 증가는 사료국~신라 조기의 고고학적 연구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인왕동·황오동 A~I지구 구획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2. 생활유구

생활유구는 초기철기에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에서 수혈이 1기씩 확인되지만 주거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경주 도심지구에서 최초로 생활유구가 확인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즉 초기철기 관련 자료는 대부분 경주 도심지구를 벗어난 주변지구에서 확인되었고 그나마 분묘자료가 율동했기 때문이다.

원삼국 전기의 생활유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탑동 일대에서 원삼국 전기의 목관묘가 확인된 점은 앞으로 생활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은 있어 자료증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삼국 후기는 월성 북서편 95-1, 2호 주거지와 수혈이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 교동 158-2번지 유적(계림문화재연구원 2017) 주거지에서 노형토기편, 호편 등이 확인되어 경주 도심지구에서 취락의 분포범위가 확대된다.

신라 조기는 월성 3호 해자 북편 95-1호 주거지가 일부 확인된 정도이다. 아직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신라 조기로 추정되는 주거지 2기가 인왕동 471-2번지의 동부사적지대 발천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그림 2). 유물은 통형고배 등이



[그림 2] 동부사적지대 발천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

이 출토되었고 주거지 내부에서 소토가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 주변으로 소토가 다량 확인되어 인접한 범위에 주거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원삼국 전기 경주 도심지구에서 분묘유구는 탐동에서만 확인된다. 원삼국 후기는 인왕동, 황남동, 쪽샘지구에서 확인되고 신라 조기는 최근 월성로와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분묘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또 생활유구는 초기철기에 사정동, 교동, 나정에서만 확인되고 원삼국 전기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초기철기 자료로 볼 때 앞으로 그것이 확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삼국 후기~신라 조기의 생활유구는 교동, 월성, 인왕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전 시기에 비해 좀 더 뚜렷하다.

Ⅲ.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의 분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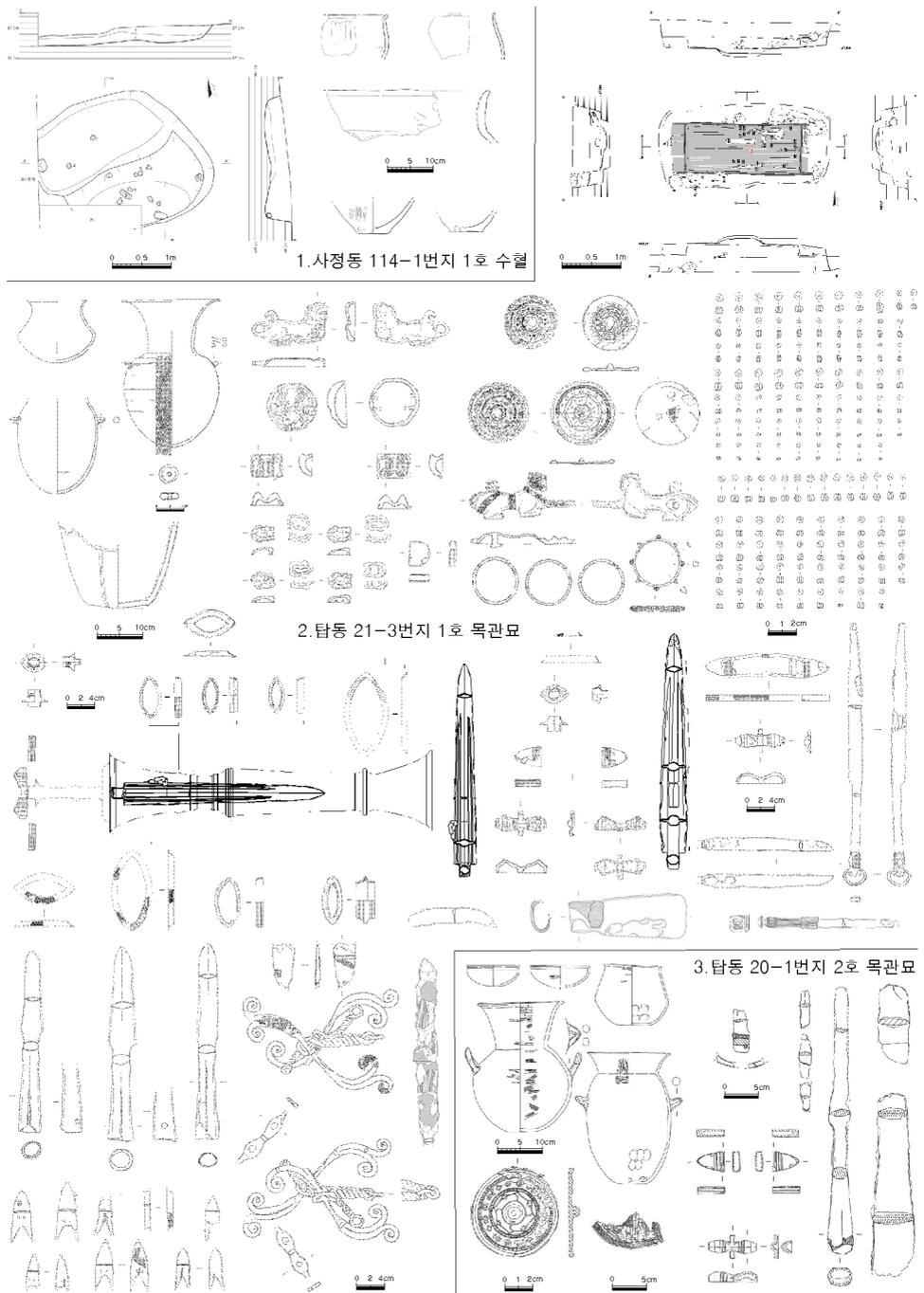
1. 초기철기~원삼국 전기

신라형성기 경주 도심지구의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의 분묘와 생활유구의 분포양상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림 3]과 같다.¹⁾ 분묘유구는 원삼국 전기에 오릉과 인접해서 탐동 21-3번지(1호), 20-1번지(2호), 20-6번지(3호)에서 목관묘가 1기씩 확인되고, 생활유구는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에서 초기철기 수혈

1) [그림 3, 6, 9]의 유적 분포도는 최병현(2014)과 허재민(2022)의 논문을 참고한 후 최신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3] 초기철기 수혈 및 원삼국 전기 목관묘 분포양상



[그림 4] 초기철기 수혈(1) 및 원삼국 전기 목관묘(2, 3)

이 1기씩 확인된다(그림 3, 4).

〈초기철기〉 경주지역은 초기철기에 목관묘가 등장하는데, 하구리, 조양동, 구어리 산65-4번지, 북토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북토리 39-1번지 유적(계림문화재연구원 2014) 등으로 경주 도심지구를 제외하고 확인된다. 따라서 경주 주변지구를 중심으로 목관묘가 형성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경주 도심지구의 사정동 114-1번지 유적에서 평면형태 부정형에 길이 274cm, 너비 215cm, 깊이 20~40cm의 초기철기 수혈 1기가 확인된다. 유물은 점토대 용 구연부편 1점, 무문토기 용 구연부편 1점, 무문토기 호 구연부편 1점, 무문토기 저부편 2점이다(그림 4-1). 또 교동 158-2번지 유적의 수혈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중복되었는데, 평면형태 원형에 지름 72cm, 깊이 15cm로 유물은 점토대 용 2점, 두형토기 1점, 석촉 1점이다.

나정유적(中央文化財研究院 2008)은 4차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1차 시설은 수혈을 중심으로 주혈, 구상유구, 목책 순으로 배치된 일렬 구조로 점토대 용 1점과 두형토기 1점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3의 左下). 물론 경주 도심지구에서 거주 흔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초기철기 주거지가 아닌 수혈이 확인되었지만 도심과 주변지구에서 동시에 사람이 정주²⁾했을 가능성은 커서 주목된다.³⁾ 앞으로 경주 도심지구에서 초기철기 주거지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의미가 있다.

〈원삼국 전기〉 원삼국 전기의 목관묘 중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기원전 1세기 중엽의 탐동 20-6번지 3호 목관묘이고 다음이 기원전 1세기 후엽의 탐동 20-1번지 2호 목관묘(그림 4-3) 그리고 기원 1세기 후엽의 21-3번지 1호 목관묘(그림 4-2) 순이다. 따라서 원삼국 전기의 경주 도심지구는 기원전 1세기 중엽의 목관묘가 탐동에서 처음 확인되고 기원 1세기 후엽까지 존속하지만 탐동 일대에서만 확인된다. 한편 탐동 목관묘 중 탐동 21-3번지 1호는 경주 서부지구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항상 비교된다. 즉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부장품의 기종구성이 흡사한데, 바닥면에 깔린 판상철부만 차이를 보인다.

2) 경주 도심지구의 토지활용은 북천의 범람 우려가 해소된 기원 6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정동 114-1번지 유적은 장기 정주보다는 임시 캠프적 성격도 고려된다.

3) 경주 도심지구를 제외한 주변지구의 생활유구는 화천리 산251-1유적(주거지 10기, 수혈 31기, 주구형유구 4기, 구상유구 19기, 폐기장 3기 등: 嶺南文化財研究院 2011), 보문동 336-1번지 유적(수혈 1기: 韓國文化財財團 2017c), 죽동리 653·654번지 유적(수혈 4기, 구상유구 2기: 韓國文化財財團 2018b), 망성리 612-1번지 유적(구상유구 2기: 韓國文化財財團 2022) 등이다. 특히 화천리 산251-1유적은 주거지를 비롯해 구릉 정상부에 의례유구(주구형유구) 등이 확인되어 당시 취락 양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경주지역 초기철기 분묘와 생활유구를 종합한 논의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하튼 신라형성기 경주 도심지구의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의 고고자료는 주변지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조사의 부족 탓인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왜냐하면 최근에 초기철기 수혈의 존재는 당시 생활상을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경주 도심지구의 명확한 실상은 앞으로 자료 증가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표 2] 사라리 130호와 탑동 1호 목관묘 출토유물

유물 유적	청동기			철기							장신구	토기 (토제품)
	세형 동검	동경	기타	철검	철모	철촉	판상 철부	단조 철부	환두 도자	기타		
사라리 130호	2	방제경 4	호형대구2 동포9 청동천12 청동지환17 유문동기 청동마구	1	2	24	70	4	소도4	철복 재갈3 철검	경식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주머니호 개 소용 대호 연질호
탑동 1호	2	방제경 일광경	호형대구2 동포5 청동천4 불명동기	1	3	7		1	삼엽문 환두도 도자 소도	철복 재갈 철검 철사 철착	경식 구슬2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주머니호 양이부호 방추차

중요한 점은 경주 도심지구의 원삼국 전기에 탑동에서 확인된 수장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같은 기원 1세기 후엽의 목관묘로 당시 경주 도심지구와 서부지구의 수장묘지만 연속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두 목관묘 부장품의 기종 등이 유사한 점에서 당시 매장 의례의 동일성도 간추려진다(표 2). 즉 매장 의례의 공유는 당시 지구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사라리 130호와 탑동 21-3번지 1호 목관묘를 버금가는 무덤은 영남 지역으로 넓혀 보더라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막대한 권력을



[그림 5] 나정-오릉-탑동목관묘 위치도

가진 수장의 영유를 뒷받침해 줄 주거지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의문점이 남는다.

이상에서 초기철기~원삼국 전기는 경주 도심지구에서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의 수혈을 통해 초기철기부터 사람이 정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조선 유민이 경주지역의 산골짜기(山谷之間)에 들어와 6촌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재지민은 경주 도심지구에 이미 초기철기부터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월성의 서성벽에 인접한 월정교 남쪽의 남천변에서 초기철기 원형점토대토기 및 두형토기 등이 출토된 포함층이 발굴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병현 2016b: 62). 특히 원삼국 전기의 탐동 21-3번지 1호 목관묘는 당시 경주 도심지구의 위상을 대변하는데, 주인공을 국제적 인물로 한군현, 북방과 교역을 담당한 주체인 한편 나정-오릉-탐동유적과 연계한 제의의 공간에 궁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양수 2022, 2023). 이렇듯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의 분묘와 생활유구의 분포양상으로 볼 때 나정-오릉-탐동목관묘 일대(그림 5)를 중심으로 단위취락의 형성을 시사한다.

2. 원삼국 후기~신라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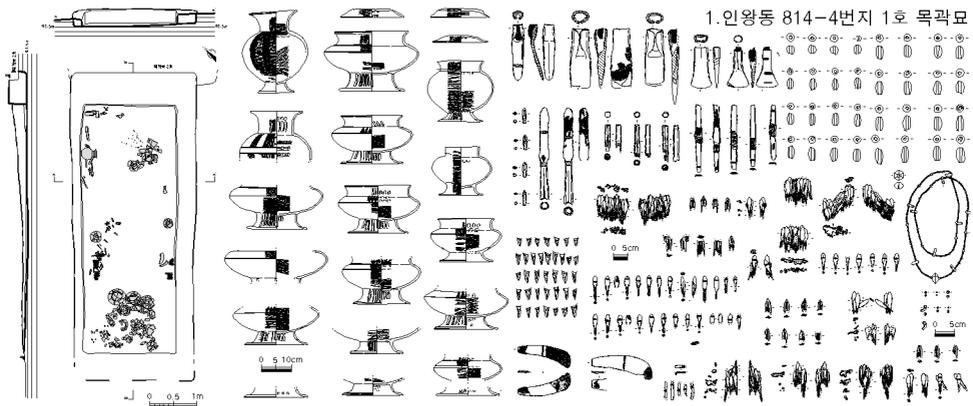
신라형성기 경주 도심지구의 원삼국 후기 분묘와 생활유구의 분포양상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림 6]과 같다. 분묘유구는 인왕동, 쪽샘, 황남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생활유구는 월성과 교동에서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된다(그림 7).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의 분묘는 오릉과 월성남구역 사이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되고 생활유구도 사정동과 교동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삼국 후기~신라 초기 분묘는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생활유구도 월성남북구역에서 주거지가 최초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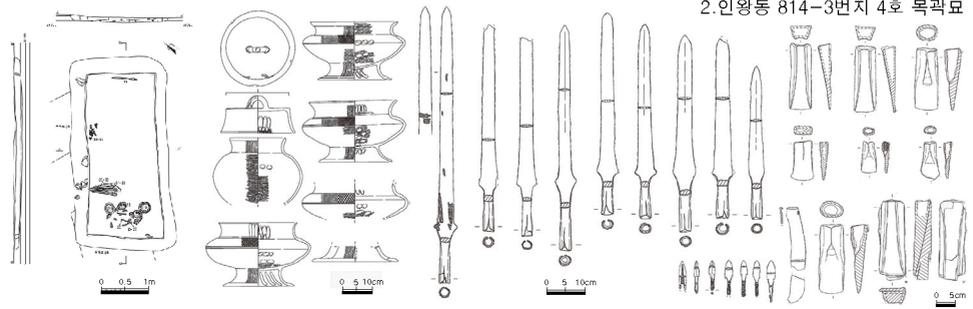
〈원삼국 후기〉 경주지역에서 원삼국 후기에 목곽묘가 등장하지만 경주 도심지구의 유적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인왕동고분 C군 6호묘 하층(그림 7-5), 인왕동 807-4번지, 인왕동 주유소 부지의 출토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고배 등의 보고를 통해 인왕동을 중심으로 늦어도 기원 3세기부터 목곽묘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원삼국 후기의 분묘 구조와 여러 양상을 구체화하기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문화재단의 소규모 국비발굴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쪽샘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인왕동 814-3, 4번지, 황남동 95-4, 6번지, 쪽샘 C지구 등에서 원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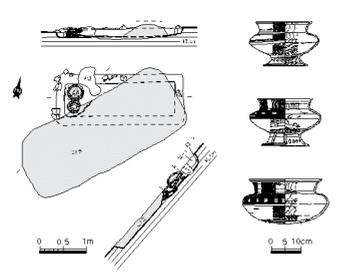
[그림 6] 원삼국 후기 목곽묘 및 주거지 분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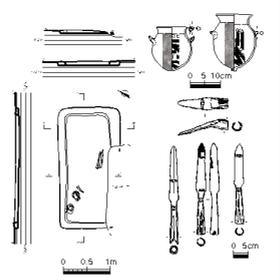
1.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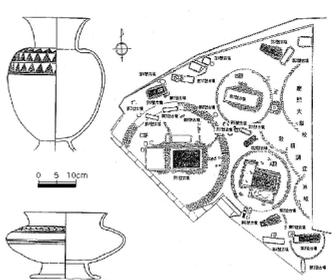
2. 인왕동 814-3번지 4호 목록묘



3. 폭섬 C지구 2호 목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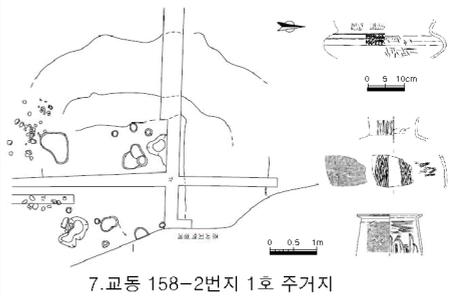
4. 황남동 95-4번지 8호 목록묘



5. 인왕동 고분군 C군 6호묘 하층



6. 월성 북서편 95-1호 주거지



7. 교동 158-2번지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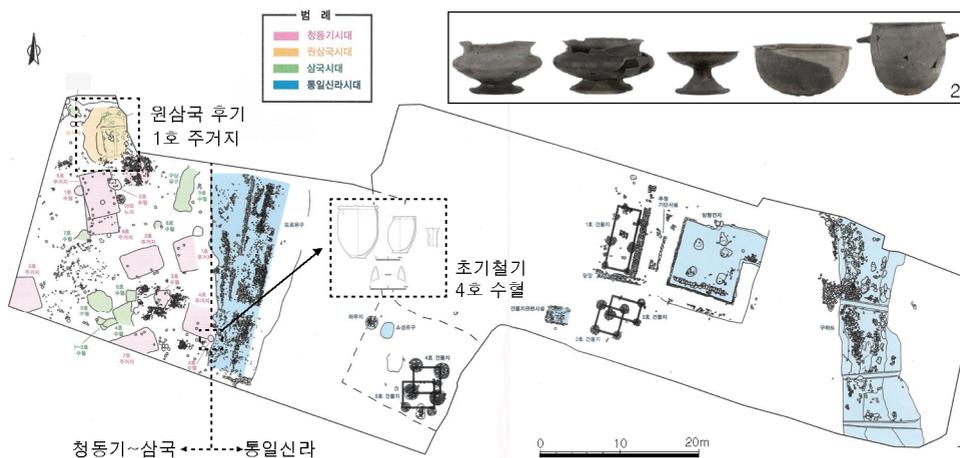
[그림 7] 원삼국 후기 목록묘(1~5) 및 주거지(6, 7)

국 후기의 목곽묘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소규모 국비발굴은 발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곳에 대한 당시 상황을 큰 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곽묘(그림 7-1)와 814-3번지 4호 목곽묘(그림 7-2)가 보고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중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곽묘는 상층 유구 등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고 잔존 길이 668cm, 너비 262cm, 깊이 31cm 정도이다. 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 등 총 263점이 출토되어 현재 경주 도심지구에서 기원 3세기 전엽을 대표하는 목곽묘이다. 반면에 황남동 95-4번지 8호 목곽묘(그림 7-4)는 평면형태 장방형에 길이 257cm, 너비 131cm, 깊이 13cm 정도이고, 유물은 토기류, 철기류가 총 6점이 확인되어 대조적이다. 또 쪽샘 C지구 2호 목곽묘(그림 7-3)는 평면형태 장방형에 길이 274cm, 너비 110cm, 깊이 25cm 정도이고, 유물은 노형토기 3점만 출토되었다. 따라서 원삼국 후기 경주 도심지구의 목곽묘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규모와 부장품 등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아직은 자료가 미약한 편이지만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곽묘 등으로 볼 때 이제 원삼국 후기부터 이곳에 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였음은 분명해졌고 더욱이 월성북고분군에 초대형 목곽묘가 존재하고 있음도 드러나는 것이다. 원삼국 후기 최고 위계의 목곽묘가 바로 이곳 월성북고분군에 자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최병현 2021: 169).

주거지는 기존에 월성 북서편에서 확인된 주거지(그림 7-6)가 잘 알려져 있지만 주거자료는 상당히 희소하다. 다행히 최근에 교동 158-2번지에서 원삼국 후기 주거지 1기가 확인되어(그림 7-7) 당시 거주 공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물론 상층 유구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길이 327cm, 너비 182cm, 깊이 71cm 정도이고, 유물은 노형토기, 장동옹 등이다. 또 삼국시대 주거지 1기를 비롯해 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철기 수혈, 통일신라 적심건물지 등이 확인되었고(그림 8-1),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도 수습된 점으로 보아 선사~고대에 이르기까지 주거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성 남성벽 취락 대지조성면(그림 8-2)에서 기원 3세기대의 노형토기 등이 출토되어(장기명 2023b) 원삼국 후기의 자료가 더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월성과 교동 일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자료 증가를 통한 명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교동 158-2번지 유적 유구배치도(1) 및 월성 남성벽 취락 대지조성면 출토 토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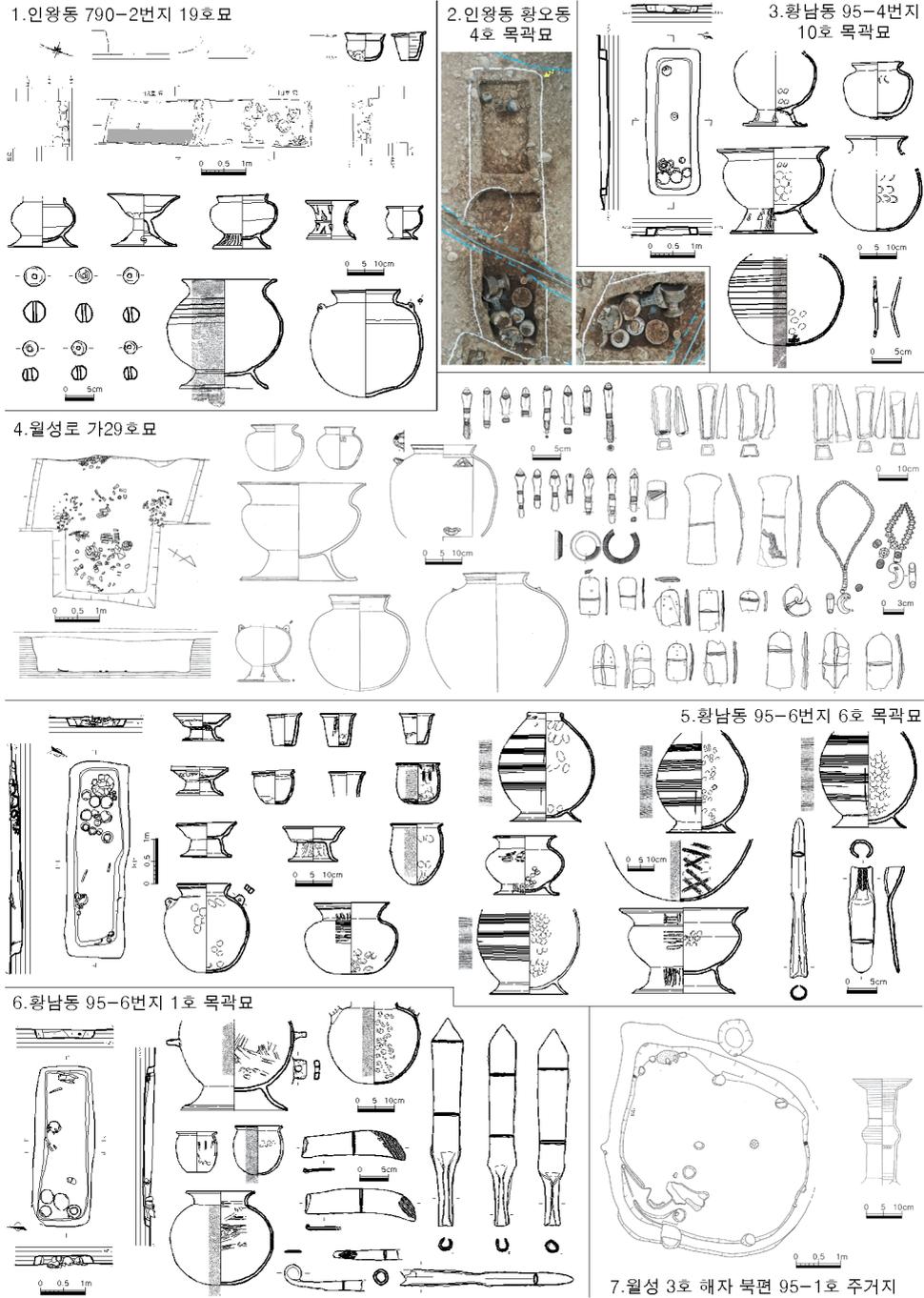
이상에서 원삼국 후기가 되면 경주 도심지구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를 조성하였고 인접한 월성남북구역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단편적이지만 월성 주변에서 이미 기원 2세기 후엽부터 3세기에는 목곽묘가 조영되고 단위취락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월성 주변의 경주 선상지가 농업적 기반이 좋지 않아 처음부터 중심취락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주체 세력에 의한 월성의 사로국 국읍 역할은 늦어도 목곽묘 단계에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재현 2016: 98).

〈신라 초기〉 신라 초기의 분묘와 생활유구의 분포양상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림 9]와 같다. 분묘유구는 인왕동, 월성로, 쪽샘, 황남동, 황오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생활유구는 월성북구역에서 주거지가 확인된다(그림 10).

경주지역에서는 원삼국 후기에 이어 신라 초기에도 목곽묘가 지속적으로 조영되지만 원삼국 후기와 마찬가지로 경주 도심지구의 유적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경주 도심지구의 고고자료가 부족한 상황은 이 시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이다. 물론 월성로(가지구), 황오동 385-10번지, 인왕동고분 A군 3호묘 호석 하층에서 신라조기양식 고배 등이 확인된 예는 있다(최병현 2014: 130). 그 중 월성로(가지구) 29호묘(그림 10-4) 등은 발굴조사범위의 한계로 정확한 구조를 알 수는 없지만 확인된 유물만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 등 총 67점 정도라서 신라 초기의 경주 도심지구를 대표하는 목곽묘 중 하나이다. 최근에 경주 월성로와 차선이 이어지는 인왕동 790-2번지 분묘(그림 10-1)가 확인되었는데(계림문화재연구원 2019), 전선지중화공사 구



[그림 9] 신라 초기 목곽묘 및 주거지 분포양상



[그림 10] 신라 초기 목곽묘(1~6) 및 주거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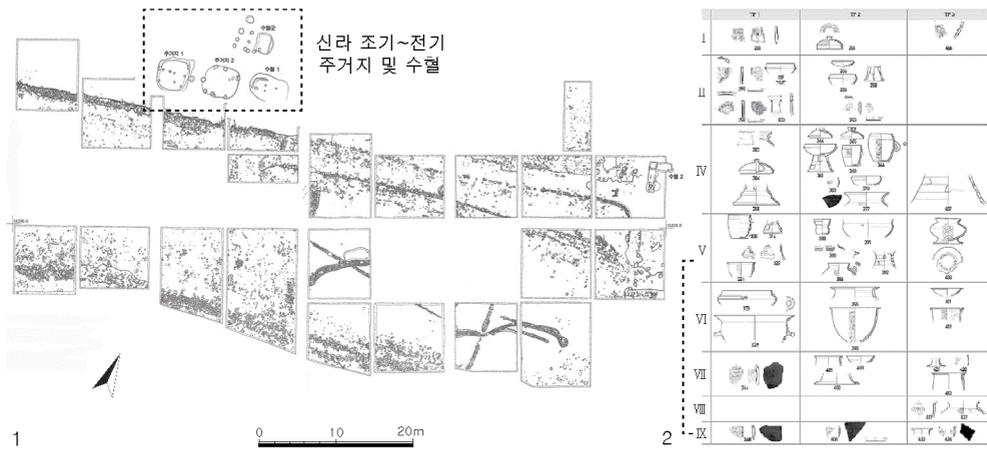
간의 조사범위 한계로 구조 등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배, 소옹, 양이부호, 기대, 토제 구슬 등이 확인된다. 또 황남동 95-4, 6번지 유적, 쪽샘 B지구, 인왕동·황오동[A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조기의 목곽묘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월성로와 인왕동 790-2번지 유적과 달리 평면형태와 구조 등을 알 수 있어 신라 초기 목곽묘의 양상을 점검하기에 중요한 자료이다.

황남동 95-4번지 10호 목곽묘(그림 10-3)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에 가깝고, 유물은 단경호 3점, 노형기대 1점, 대부호 1점, 호 2점, 호 저부편 1점, 불명철기 1점이다.

황남동 95-6번지 6호 목곽묘(그림 10-5)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고, 유물은 노형토기 1점, 노형기대 1점, 고배 4점, 꺾형토기 4점, 옹 2점, 파수옹 1점, 양이부호 1점, 대부호 3점, 철모 1점, 따비 1점이다. 1호 목곽묘(그림 10-6)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유물은 노형기대 1점, 양이부호 1점, 단경호 1점, 옹 2점, 도자 1점, 판상철모 7점, 철모 1점, 철검 2점, 유자이기 2점이다.

인왕동·황오동[A지구] 4호 목곽묘(그림 10-2)는 정식보고되지 않았지만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유물은 고배, 대부호, 통형기대, 발형기대, 소형기대 등 토기류 12점과 철기류 1점, 구슬 등이다. 특히 기대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는데, 그 중 통형기대는 포항 마산리 149-4번지 것과 많이 닮아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인왕동·황오동 A~I 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일대의 부족했던 고고자료 확보를 가정하면 신라 초기 분묘에 대한 양상 파악이 기대된다. 한편 신라 초기 경주 도심지구의 목곽묘는 규모와 부장품에서 차이가 확연하진 않지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인왕동·황오동[A지구]의 것이 약간 우세하다.

주거지는 월성 3호 해자 북편 95-1호 주거지(그림 10-7)가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깝고 규모는 길이 550cm, 너비 470cm, 깊이 20cm 정도이고, 내부에 주혈과 추정 벽체시설 그리고 목탄과 바닥면에서 소토층이 확인된다. 유물은 꺾형토기 1점, 완 1점, 단경호 3점, 통형기대 1점, 대부단경호 1점, 파수부호 1점, 방추차 4점이다. 1호 주거지와 인접해서 2호 주거지가 위치하는데, 출토 고배로 볼 때 신라 전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파악된다(그림 11-1). 아직 정식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인왕동 471-2번지의 동부사적지대 발천유적에서 주거지 2기가 확인된 정도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곳은 주거지 주변으로 소토가 다량 확인되어 인접한 범위에 주거군이 존재했을 것이다. 발천을 중심으로 남천에 이르기까지의 미고지에 기원 3~5세기대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그 시기에 부합



[그림 11] 월성북면 전체 유구배치도(1) 및 월성 C지구 테스트피트 출토 토기(2)

하는 토기가 다수 분포하는 현상을 기초로 할 때 주거지가 밀집되어 신라 초기의 고대도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성운 2023: 76). 따라서 발천과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월성 C지구 테스트피트 결과(그림 11-2) V층의 일부 토기와 VI층을 기준으로 그 아래층에서 대부호와 웅이 중심인 기원 3~4세기의 타날문토기들이 확인된다(최문정 2021). 또 동궁과 월지 A건물지의 남편트렌치 조사결과 기반층과 대지조성층의 성토방향과 두꺼운 빨층을 확인하였는데, 빨층에서 기원 3~4세기대 타날문 단정호 등이 확인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8: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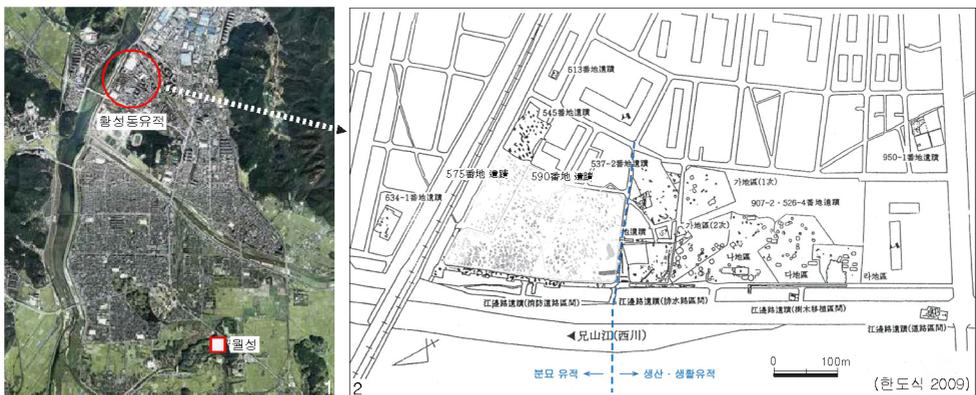
이상에서 신라 초기의 경주 도심지구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가 공동묘지 역할을 이루는 공동묘지의 양상이 가속화되는데, 평면형태는 세장화가 뚜렷해지는 한편 발천과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또 주거가 계획적으로 축조된 것을 의미하므로 월성축조와 함께 공간구성에 재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李在興 2009a: 161). 특히 월성북고분군의 공동묘지 조영은 집단의 구성원이 일정한 구역을 정해 집단적 무덤을 조성한 것으로 조상과 토지와 산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가시적인 행위이다. 즉 영역 내 혹은 경계에 공동묘지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자원의 이용 및 통제, 이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 있어(李在賢 2003) 월성북고분군 집단의 세력을 반증한다. 물론 중심고분군은 이혈주부곽식목곽묘-동혈주부곽식목곽묘-목곽묘, 주변고분군은 동혈주부곽식목곽묘-목곽묘의 구성을 보

여서 이는 이혈주부곽식목곽묘가 최상층으로 보고 있다(車順喆 1999: 103~105). 하지만 신라 조기의 경주 도십지구에서 명확한 이혈주부곽식목곽묘의 존재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최근에 보고된 신라 전기에 해당하는 L17호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를 통해 머지않아 그곳에 이혈주부곽식목곽묘의 등장을 예상하게(최병현 2021) 되어 중심고분군의 면모를 갖춘 공간을 의미한다.

IV. 공간적 의미: 월성과 황성동 · 천군동 생산유구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십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를 결부해서 분포양상을 초기철기~신라 초기 순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월성북고분군 세력이 국읍의 역할을 한 중심지 월성과 생산시설에 초점을 맞춘다. 즉 월성과 인접한 황성동유적(그림 12-1)과 함께 최근에 보고된 천군동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23)의 제철유구를 대상으로 공간적 의미에 접근한다. 왜냐하면 신라의 경우 제철과 철기제작은 기원 3세기 중엽 이후 이전보다 한층 조직화되고 더욱 다양해진 생산체제를 이룬다. 이러한 제철의 조직화를 통한 내부통합의 가속화는 고대국가 형성에 주요한 동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李熙濬 2004).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은 황성동 · 천군동유적의 제철 집단과 궤를 같이 해서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먼저 황성동유적의 고고학적 연구는 제철유적(金世基 1994; 孫明助 1997)과 함께 분묘군의 변천(安在皓 1995; 車順喆 1999; 黃昌漢 2001)이 집중되었고 이후 생산·생활·분묘의 단계별 공간구성을 통해 황성동 집단의 성격(崔景圭 2004; 林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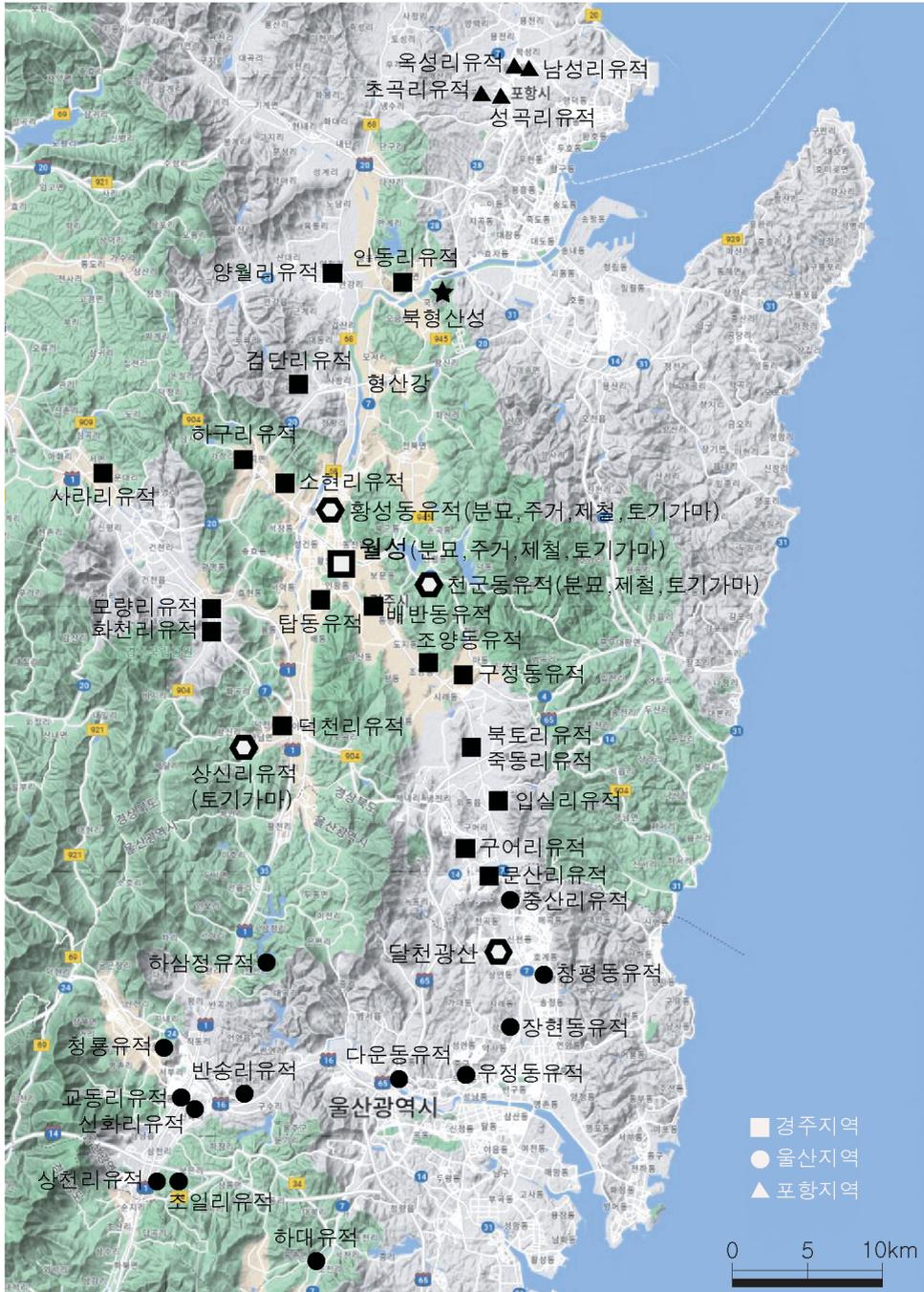
[그림 12] 월성과 황성동유적 위치도(1) 및 황성동 일대 유적 분포도(2)

在 2005)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황성동유적 발굴 20주년을 기념해서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에 대한 학술대회(嶺南文化財研究院 2009)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가 주제별로 논의되었다(김권일 2009; 김나영 2009; 우병철 2009; 이재홍 2009b; 이제동 2009; 한도식 2009). 최근에 황성동유적의 세밀한 토기 편년(安在皓·韓承鉉 2015)도 진행되었고 원삼국 후기의 II 나-13호 토기요(長友朋子 2019, 2020; 李盛周 2020)의 존재도 밝혀졌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은 생산·생활·분묘가 함께 조성된 복합유적(그림 12-2)이어서 한국고고학에서 단일유적을 대상으로 고고학적 논의가 왕성한 곳 중 하나지만 그곳이 가지는 공간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뚜렷하지 않다.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 요인은 기본적으로 취락, 무덤, 토성, 생산시설, 교통로 등의 공간 확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취락은 산 자의 공간이고 무덤은 죽은 자의 공간이다. 또 국읍이 「國」을 단위로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 읍락에 존재하지 않았을 토성(權五榮 1996: 113)과 생산시설, 교통로 등은 정치체의 성장에 있어 충분조건이다. 그 중 앞서 언급했듯이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시설에 비중을 두어 접근하고자 하는데, 월성과 경주 인접 지역 목관·목곽묘 및 생산유적 분포도는 [그림 13]과 같다. 그동안 황성동유적은 철기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집단으로 성장하지만 여기서는 최상위의 무덤이 없어 상위 국읍세력의 통제를 받는 전문수공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할하던 중심세력은 월성북고분군 세력으로 보고 있다(이재현 2016: 102).

중요한 점은 제철은 철산지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원료의 입수단계부터 광역적인 교역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제작에도 고도의 기술과 생산체계가 필요해서 개별읍락단위에서 행해질 성격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의 대규모 제철유적은 철기 생산의 주요한 거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계는 하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광석의 확보, 목탄의 공급, 생산 및 유통 단계별로 다양화된 제철 생산체제를 통제하고 조직화하는 것은 경주 도심지구에 거주하는 지배층의 기능이다. 또 지배층은 제철 생산체제의 통제와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적인 철기보다는 무구처럼 한층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부 고급철기의 생산에도 개입(李在興 2009a: 171)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경주 도심지구의 월성북고분군 세력이 철기생산의 독점시장을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희귀한 자원이나 생산요소의 독점사용권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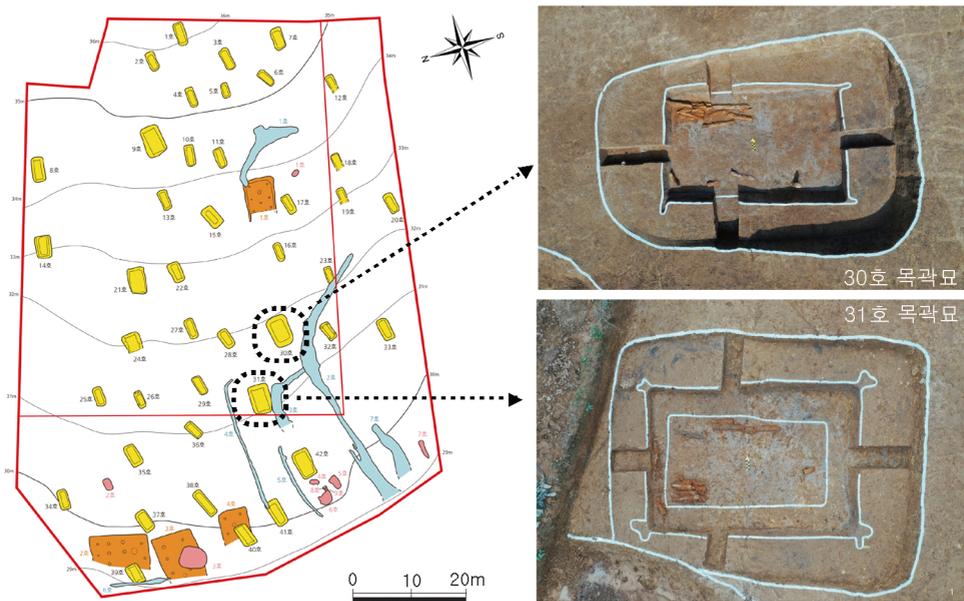


[그림 13] 월성과 경주 인접 지역 목관·목곽묘 및 생산유적 분포도

원이나 요소를 사용하는 산업은 독점화된다.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세력은 황성동 제철유적을 통한 철기생산의 독점시장원리를 대내외 정치적 성장에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다. 즉 철은 다루는데 고도의 특수 기술이 필요해 아무 집단이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한편으로 집단들을 연결함으로써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權五榮 1996: 109~112). 또 정치체의 성장과 관련해서 교통로와 주변 환경 및 지리적 이점이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인데, 그 중 철의 확보가 막대한 부가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지리 관계 때문에 중국적으로 교통, 경제 교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우열이 생겨났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이희준 2007: 177). 따라서 황성동유적의 공간적 의미를 교통로와 주변 환경 및 지리적 이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황성동유적은 형산강과 인접한데, 형산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에서 발원하여 경주시와 포항시 도심을 관통하여 영일만을 통해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다. 따라서 경주와 동해안(영일만)과는 이 형산강을 통해 교통이 매우 용이해서(李炯佑 2000: 181) 교통망의 구조와 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공간구조가 형성되며 교통망 체계의 발달은 정치체의 성장과도 직결된다(이희연 2011).

주목할 점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라 하여 나라에는 쇠가 나는데, 마한·예·왜 모두가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철은 「國」단위로 교역되었고 그 형태는 철광석보다는 중간소재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權五榮 1996: 108). 즉 변진의 철이 대외적으로 수출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진한의 철 수출도 개발 가능한 철산지의 분포로 볼 때 활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희준 2007: 183). 어쩌면 황성동유적에서 생산된 철은 형산강길을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주변국과 교역했을 가능성인데, 황성동유적이 그곳에 위치한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⁴⁾ 왜냐하면 제철유적과 큰 하천은 인접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형산강은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여 수운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金權一 2020: 43). 물론 형산강을 통해 수운이 가능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소규모 선박의 수운이 가능하였다(김중원 2016: 45). 특히 江上交通路와 海上交通路와의 연결이 중요해서(李健茂 2023: 15), 소규모 선박은 형산강의 江上交通路를 이용해서 철을 해안까지 운반한 후 큰 선박으로 옮겨 海上交通路로 나아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로의 개척과

4) 교역로는 다양할수록 유리해서 동천과 울산만, 낙동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역했을 것은 당연하다. 다만 형산강도 다양한 교역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유념할 필요성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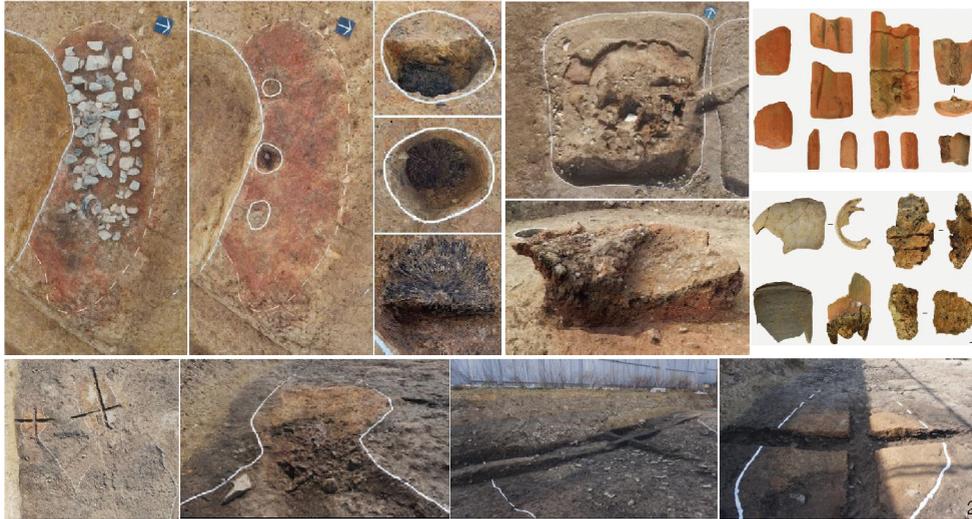


[그림 14]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

확보는 경제·정치적인 효과가 커서 국가의 성장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정섭 2016: 241).

아울러 형산강 유역은 왜의 침입이 잦았고 동해안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데, 왜의 침입은 기원 3세기 말~4세기 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이어져 왔다(이현섭 2023: 57). 따라서 형산강이 철을 수출하는 길인 동시에 왜의 침입을 받는 길이어서 왜와 연결된 길로 추정된다. 최근에 보고된 인동리에서 원삼국 분묘 42기(그림 14)의 군집묘가 확인되었다(서준교 2022). 이곳은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유로가 급격히 꺾이는 곳에 위치해서 아마도 왜의 침입과 관련된 방어적 성격 등을 내포하는지도 모르겠다.⁵⁾ 특히 인동리유적이 인접한 북형산성(그림 13 참조)은 기원 673년에 축조되어 시기적으로 차이는 크지만 그곳에 산성이 위치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황성동유적과 인접한 용강동유적에서는 제철 조업을 하는 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조쟁이 거푸집 폐기장 및 송풍관편, 철재 등의 제철 관련 유물이 출토되어 황성동 일대만이 아니라 형산강 지류인 용강동 일대까지 넓게 형성되었다(신동조 2014: 502). 최근에 용강동

5) 기원 2세기 중엽~3세기 초의 목곽묘에 다량 부장된 철모는 무력 기반의 확립을 의미하는데(李熙濬 2011c), 30호 목곽묘(철모 16점)와 31호 목곽묘(철모 19점)의 철모 부장량(그림 14의 右)은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5] 천군동 토기가마와 제철유구(1) 및 신농협혁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 토기가마(2)

1151-1번지 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에서 목곽묘 1기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그 가능성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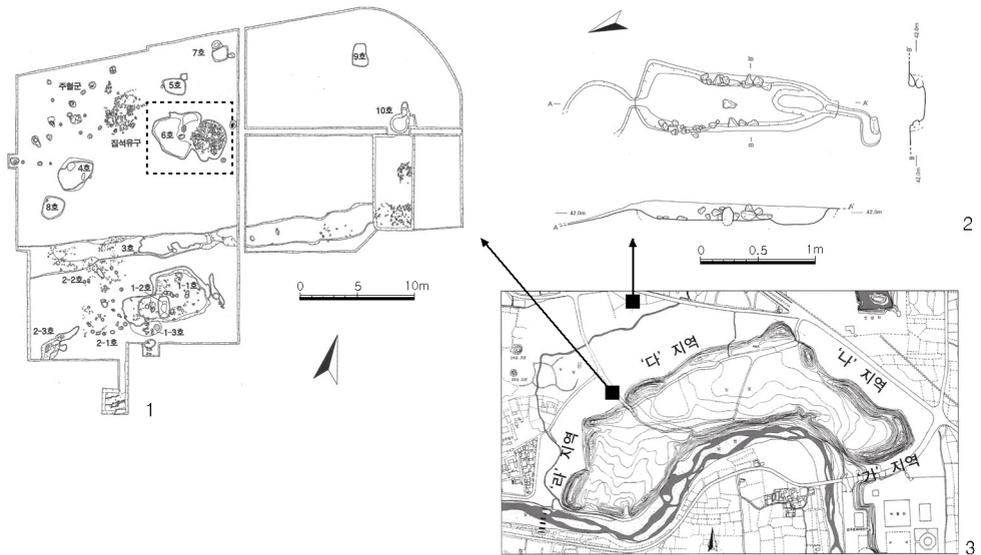
천군동유적은 제철유구 8기(그림 15-1 右)가 확인되어 그동안 황성동에만 의지 하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시기는 전반적으로 용해로의 구조가 비슷한 황성동 I-가-9호 용해로와 황성동 590번지 유적 2호 용해로를 참고하면 기원 2세기 후반~3세기로 보이는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A.D.1~A.D.210(88.7%)으로 도출되어 참고된다.

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는 배수가 양호하고 침식이 거의 없어 작업공간의 확보가 유리하고 배후 산에서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주변에 백탄요가 많아 입지적으로 유리한 곳이다. 제철유구의 연료가 되는 백탄요는 서라벌문화재연구원(2018) 15기, 진흥문화재연구원(2018) 12기, 홍익문화재연구원(2018) 11기로 총 38기가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들에 의하면 삼국시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천군동유적Ⅱ에서 확인된 제철유구를 감안할 때 동시기의 백탄요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또 황성동유적과 경주 도십지구에서는 백탄요가 확인되지 않아 천군동 등에서 지원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원철괴, 유리질 슬래그, 산화물이 고착된 시료에서 비소(As)가 검출되어 달천광산의 미량원소인 비소와 동일하여 철광석 원료는 달천광산에서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김경수·여신지 2023).

경주 도십지구에서 벗어난 천군동에서 황성동과 비슷한 형태의 제철유구가 확인

되었는데, 모두 월성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서 주목된다. 특히 황성동유적은 월성과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천군동유적은 월성과 4.5km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황성동유적과 마찬가지로 천군동유적은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영향권에 속한 듯하다. 또 울산 동천유역권의 생산시설인 달천광산은 황성동 제철유적과도 관련이 깊어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한편 생산시설은 월성에서도 확인되는데, 월성의 축조와 함께 기존에 보이지 않던 생산시설이 집중된다. 즉 계림 남편에서 기원 3~4세기의 제철유구가 확인되는데(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제철로보다 단야로가 주로 나타난다(그림 16-1). 특히 대규모 제철유적이 아니라 철 소재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내부에 필요한 철기를 제작하던 공방으로 무구와 같은 고급철기일 가능성이 크다(李在興 2009a: 161).

다음으로 토기가마는 황성동, 천군동유적과 첨성대 남편에서 확인된다. 황성동 II 나-13호 토기요는 출토유물을 통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황성동 I 나-6호 주저지 출토 와질토기 등을 참고하면 기원 3세기대가 중심이다(長友朋子 2019). 특히 경주 황성동 II 나-13호 토기요는 낙동강 유역 전체에 이러한 토기가마가 보급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우거리식 요’라 할 수 있는 반지하식 고온 소성요가 개발되기 전까지 와질토기를 생산했던 가마이다(李盛周 2020: 128).



[그림 16] 기원 3~4세기 경주 월성의 생산시설

1. 계림 남편 유구배치도 및 6호 수혈(제철유구), 2. 첨성대 남편 토기가마, 3. 월성해자(李在興 2009a 수정)

천군동유적은 제철유구와 함께 토기가마도 1기 확인된다(그림 15-1 左). 토기가마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지상식에 가까운 반지하식으로 소성실과 외부 구만 확인된다. 내부에는 피열된 할석이 깔려있고 그 사이에 토기편이 흩어져 있어 이상재로 판단된다. 바닥면 중앙부에는 주혈 3개가 등간격으로 확인되는데, 내부에는 직경 10cm의 목탄이 있어 천정부 축조시 세운 지주목이다. 시기는 출토된 단경호가 최병현의 연대관에 의하면 신라조기양식 1a단계인 기원 3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김경수·여신지 2023).

첨성대 남편에서 토기가마가 조사되었는데(그림 16-2), 파괴가 심해서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제철유구와 동일한 시기로 추정된다(李在興 2009a: 161). 특히 화재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경주 도심지구 내부에 토기가마가 위치한 점으로 보아 광역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토기가마의 존재가 예상된다(李在興 2009a: 171). 어쩌면 토기의 복잡성을 띠는 신선로형토기, 압형토기 등을 월성북고분군 세력에 의해 생산·유통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상에서 경주 도심지구의 철기는 황성동과 천군동유적에서 공급되었을 것이다. 물론 주변지구는 생산유구가 명확하지 않지만 남부지구의 덕천리유적과 인접한 신농협혁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상신리 유적)에서 토기가마가 2기가 확인된다(그림 15-2). 토기가마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아궁이, 소성부 일부, 요전부만 잔존한다. 아직 정식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 등은 알 수 없지만 토기가마의 경사도와 바닥의 소결 상태를 통해 원삼국으로 보고 있다. 또 원삼국 주거지 3기가 확인되어 토기가마를 운영하던 공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판단된다(다운문화재연구원 2023). 특히 상신리유적의 토기가마는 덕천리유적과 인접해서 어쩌면 생산된 토기가 덕천리 집단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토기가마는 지구별로 축조하여 토기를 생산·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토기가마와 달리 제철유구는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통제에 따라 월성과 인접한 곳에서만 관리·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경주 도심지구의 월성북고분군 세력은 황성동·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 및 달천광산을 통한 철기생산의 독점시장원리를 대내외 경제·정치적 성장에 공간적으로 형상강길 등을 최대한 활용한 강상교통로와 해상교통로를 개척하고 확보하였다. 철은 중량이 많이 나가서 다량으로 이동하기 불가능하지만 해상교통은 다량의 철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어 해상을 통한 교역(朱甫暉 1998: 32)이 필연적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를 결부해서 분포양상을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와 원삼국 후기~신라 초기 순으로 검토하고 월성과 황성동·천군동유적을 연계하여 공간적 의미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경주 도심지구는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의 수혈을 통해 초기철기에 사람이 정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원삼국 전기는 탐동 1호 목곽묘 등으로 볼 때 탐동 일대를 중심으로 단위취락의 형성을 시사한다.

원삼국 후기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를 조성하였고 인접한 월성남북구역에 거주하여 이미 월성은 기원 2세기 후엽부터 3세기에는 목곽묘가 조영되고 단위취락의 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세력에 의한 월성의 사로국 국읍 역할은 늦어도 목곽묘 단계에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초기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가 공동된 묘역을 이루는 공동묘지의 양상이 가속화되는데, 평면형태는 세장화가 뚜렷해지는 한편 발천과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특히 주거가 계획적으로 축조되어 월성축조와 함께 공간구성에 재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시설에 비중을 두어 해석하였다. 즉 황성동·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에서 생산된 철기는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남부지구의 상신리유적에서 토기가마 2기가 확인되어 덕천리 집단으로 토기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토기가마와 달리 제철유적은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통제에 따라 그들에게 독점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달천광산도 포함된다.

결국 월성북고분군 세력은 황성동·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 및 달천광산을 통한 철생산의 독점시장원리를 대내외 경제·정치적 성장에 형상강질 등을 공간적으로 최대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분포양상을 정리하고 공간적 의미를 논의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으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또 경주 도심지구 이외에도 서부지구, 남부지구, 동남부지구, 북부지구, 흥해지구 등의 고고자료를 결부해야 신라 형성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가능한데 이는 향후과제이다.

투고일 2024. 4. 24 | 심사완료일 2024. 5. 23 | 게재확정일 2024. 5. 31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6, 「사로국 시기 건국과 성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 계림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북토리 39-1번지 유적-공장신축부지-』.
- _____, 2017, 『경주 교동 158-2번지 유적』.
- _____, 2019, 『경주 인왕동 790-2번지 일원 유적』.
- 具滋奉, 1997, 「慶州人旺洞 古塚群의 木槨墓 出土土器 紹介」, 『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 학연문화사.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Ⅱ』.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Ⅱ-C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6,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Ⅵ-B지구 시·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8, 『慶州 東宮과 月池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 보고서-A건물지』.
- _____, 2021,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Ⅻ-H85·86호 L17·137호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23, 『경주 인왕동·황오동(A지구) 분포·발굴조사 자료집』.
-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市 月城路 古墳群』.
-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경수·여신지, 2023, 「Ⅴ. 考察」, 『慶州 千軍洞 큰마을遺蹟Ⅱ-第Ⅰ-2區域 本文』.
- 김권일, 2009,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文化에 대한 연구」, 『嶺南文化財研究』 22.
- _____, 2020, 「古代 嶺南地域 製鐵技術의 考古學的 研究」,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9, 「경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嶺南文化財研究』 22.
- 金世基, 1994, 「隍城洞 原三國 聚落址의 性格」,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김용성, 2011, 「신라 형성기의 묘제와 경주지역 사회」, 『고고학으로 보는 신라의 형성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_____, 2015,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김종원, 2016, 「자연환경」,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사 총론편, 경상북도.
- 남시진, 1993, 「Ⅰ. 인왕동 807-4번지 건물신축부지 발굴조사」,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緊急發掘調査報告書Ⅱ)』, 慶州文化財研究所.
- 다온문화재연구원, 2023, 『경주 신흥협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2차 정밀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
- 대동문화재연구원, 2023, 『慶州 千軍洞 큰마을遺蹟Ⅱ-第Ⅰ-2區域 本文』.
-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8, 『慶州 千軍洞遺蹟-가구역·나구역-』.
- 서준교, 2022, 「원삼국시대 경주 인동리 분묘유적의 성격」, 『영남학』 82.
- 孫明助, 1997, 「경주황성동제철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新羅文化』 14.
- 신동조, 2014, 「신라의 철생산」, 『신라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6, 진인진.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주 북토리 고분군』.
- _____, 2017, 『경주 용강동 1151-1 유적』.
- _____, 2022, 『경주 동부사적지대 발천 유적 발굴조사』, 현장공개 자료.
- 安在皓, 1995, 「慶州 隍城洞古墳群에 대하여-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12.
- 安在皓·韓丞鉉, 2015, 「慶州地域 臺附直口壺의 地域相」, 『韓國考古學報』 97.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嶺南文化財研究』 22.
- _____, 2011, 『慶州 花川里 山251-1遺蹟Ⅰ』.
- 우병철, 2009,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 集團의 性格」, 『嶺南文化財研究』 22.
- 尹溫植, 2019, 「斯盧國 考古學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健茂, 2023, 「茶戶里 遺蹟의 社會相」, 『창원 다호리유적 조사 종합적 평가와 의의』, 창원 다호리 유적 재조명Ⅲ-창원 다호리유적과 진·변한 세계-, 김해 박물관·영남고고학회.
- 이경섭, 2016, 「재정의 운영과 지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의 산업과 경제편, 경상북도.
- 李盛周, 2020, 「原三國·三國時代 實用土器의 生産」, 『湖西考古學』47.
- 이양수, 2022,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 청동기로 본 대외관계와 피장자의 성격」, 『중앙고고연구』39.
- _____, 2023, 「진변한의 권력과 공간」, 『고고학으로 본 권력과 공간』,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재현, 2016, 「진·변한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辰·弁韓 '國'의 形成과 發展』,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 李在興, 2006, 「慶州地域 木槨墓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9a, 「경주와 경산지역의 중심지구 유적으로 본 4~5세기 신라의 변모」, 『한국고고학보』70.
- _____, 2009b,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嶺南文化財研究』22.
- 이제동, 2009, 「경주 황성동 와질토기에 관한 一考」, 『嶺南文化財研究』22.
- 이청규, 2005, 「사로국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國邑에서 都城으로-新羅王京을 중심으로-』, 新羅文化祭 學術論文集 第26輯,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학교 국사학과.
- 이현섭, 2023, 「신라의 형산강 유역 진출과 그 배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炯佑, 2000, 『新羅初期國家成長史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 이희연, 2011, 『경제지리학』, 법문사.
- 李熙濬, 2004,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34.
- _____,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_____, 2011a, 「경주 황성동유적으로 본 서기전 1세기~서기 3세기 사로국」, 『신라문화』38.
- _____, 2011b, 「고고학의 신라 형성기 사회 연구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신라 형성기의 유적』, (사)한국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_____, 2011c,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영남고고학』58.
- _____, 2016, 「사로국의 성립과 성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의 건국과 성장편, 경상북도.
-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장기명, 2023a, 「철생산과 의례를 통해 본 사로국의 형성과 성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3b, 「신라 월성 성벽의 구간별 축조 공정과 왕경의 축성 기술」, 『한국상고사학보』120.
- 長友朋子, 2019, 「東アツアにおける窯の系譜」, 『立命館文學』660.
- 조성운, 2023, 「신라 月城 성벽 기초 조사 연구」, 『신라문화유산연구』7.
- 朱甫敬,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도서출판 신서원.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慶州 蘿井』.
- 진흥문화재단연구원, 2018, 『경주 천군동 유적』.
- 車順喆, 1999, 「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研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崔景圭, 2004, 「1~3世紀 慶州 隍城洞 集團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최문정, 2021, 「경주 월성에서의 연대측정 연구와 방향」, 『연대 측정학을 통해본 고대 경주의 시간』, 국립경주 문화재단연구소·영남고고학회.
- 최병현, 2012, 「신라 초기양식토기의 실정과 편년」, 『嶺南考古學』63.
- _____, 2014,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한국고고학보』90.

- 최병현, 2015, 「신라 초기 경주지역 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내부의 통합과정」, 『한국고고학보』95.
- _____, 2016a,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문화재』제49권·제3호.
- _____, 2016b, 「경주 월성과 신라 왕성체제의 변천」, 『한국고고학보』98.
- _____, 2018, 「진·변한에서 신라가야로의 전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57-1, 大韓民國學術院.
- _____, 2020, 「경주지역의 목곽묘 전개와 신라 초기 왕묘의 위상」,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_____, 2021,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_____, 2023, 「경주 천마총 발굴과 신라 高塚의 현대적」, 『천마총과 동아시아 고분문화』,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경북 2』.
- _____, 2017a,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Ⅶ-경북 5』.
- _____, 2017b,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ⅠⅩ-경북 7』.
- _____, 2017c,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Ⅴ-경북 3』.
- _____, 2018a,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Ⅴ-경북 6』.
- _____, 2018b,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Ⅲ-경북 4』.
- _____,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Ⅴ』.
- _____, 2022, 『202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23, 『202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 한도식, 2009,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嶺南文化財研究』22.
- 허재민, 2022, 「3. 고찰 3-1. 경주 중심지역 목곽묘 분포양상 고찰」,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ⅩⅢ』,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전공.
- 홍익문화재연구원, 2018, 『慶州 千軍洞遺蹟』.
- 黃昌漢, 2001, 「第Ⅳ章 考察」, 『慶州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Distribution pattern and Meaning of Ancient tombs and Remains of daily life and production in the center of Gyeongju During that Shilla was formed

Lee, Won-Tae(lecturer, Department of Archaeological Art and Art History,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This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ancient tombs in Downtown Gyeongju from the Shilla was formed, correlating them with the burial and settlement remains to analyze the early Iron Age to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to early Shilla period chronologically and to discuss the spatial significance in relation to the Wolsong, Hwangseong-dong, and Cheongundong site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Downtown Gyeongju, particularly Sajeong-dong 114-1, Gyo-dong 158-2, and Najung, indicates strong evidence that there were human settlements there during the early Iron Age, while settlement communities were established around Tap-dong in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considering Tapdong #1 Wooden Gasket Tomb.

During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mounds were constructed around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while the settlers were residing in the adjacent Wolsong South-North areas. It is evident that Wolsong had already begun to build wooden chamber tombs and settlement communities from the late 2nd century to the 3rd century. Therefore, it seems that the dominating power that formed the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acted as the governing power and Wolseong was the center of Saroguk at least by the initial phase of wooden chamber tomb construction.

During the Shilla was formed, the tombs were clustered in and around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forming collective burial grounds with shared graveyards. In terms of layout, there was a distinct trend towards rectangular shapes and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re were large-scale settlements forming around Balcheon and the Wolsong North. In particular, the residential areas were carefully planned to reorganize the spatial layout alongside the construction of Wolsong.

In interpreting the growth of power within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emphasis was placed on production facilities. Specifically, the ironworks and pottery kilns discovered at the Hwangseong-dong and Cheongun-dong sites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Wolsong North Burial Cluster's authority. Additionally, it is possible that earthenware was supplied to the settlements of Deokcheon-ri as there were two kilns discovered at the Sangsin-ri site in the southern region. However, unlike pottery kilns, it was assumed that ironworks were monopolized by the Wolsong North Burial Cluster's authority, including operations at Dalcheon Mines.

In conclusion, it is possible that the authority of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applied the principle of monopoly of ironworks through the ironworks at the Hwangseong-dong and Cheongun-dong sites and Dalcheon Mines to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and political growth and took advantage of some spatial features of the area such as Hyeongsan River Trail.

Key words : Shilla was formed, Downtown Gyeongju, Ancient tombs, Wolseong, Hwangseong-dong-Cheongun-dong Remains of daily life and production, Hyeongsan River Trail